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광복 70년, 경제·산업 변화와 시사점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질적 변화 필요

발행인 : 하태형
편집주간 : 한상완
편집위원 : 주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광복 70년, 경제·산업 변화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도입 1

2. 경제 변화 3

3. 산업 변화 7

4. 주력 산업 10

5. 시사점 14

【HRI 경제 통계】 17

< 요약 >

■ 도입

(GDP 규모) 한국의 경제 규모는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13년 1조 3,043억달러로 1,003배 이상 커졌다. 1960년대 경제도약기(1962-1971년) 이후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1972-1979) 도입 첫해인 1972년 108억달러와 비교해도 121배 이상 경제규모가 커졌다.

(1인당 GDP)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 이후 62년만인 2015년 30,000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2013년 25,973달러로 390배 이상 규모로 성장했다.

■ 경제 변화

(잠재성장률) 기간별로 보면 5%대(1953-1961년)에서 10%대(1970-1979년)까지 상승했다. 이후에는 9%대(1980-1988년), 7%대(1989-1997년), 4%대(1998~2007), 3%대 중반(2008~2013)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GDP 지출 항목별 비중) 소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대 초 90% 이상에서 현재 60%대 중반으로 하락하였으나,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10%내외에서 30%대 초반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9.8%(1989-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62.1%(1998-2007년)였으나 최근 65.6%(2008-2013년)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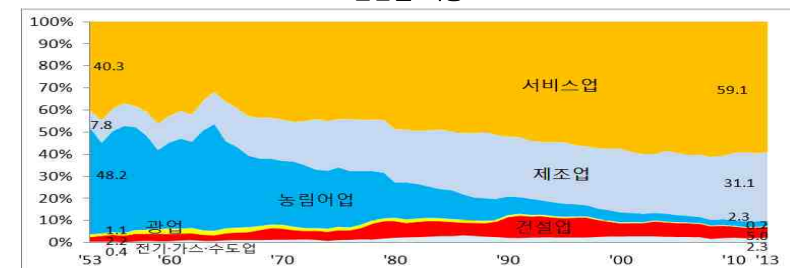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 최종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외환위기 직전 기간 각각 60%와 50%에 근접했으나 이후 50%와 15% 내외로 하락하였다.

(고용 지표 추이)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그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업자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해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

■ 산업 변화

(산업별 비중) 농림어업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1950년대 초 40% 이상에서 최근(2008-2013년) 2%대로 급격히 작아지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각각 10%와 40% 내외에서 30%와 60%내외로 커졌다.

< 산업별 비중 >



주 : 각 산업별 비중은 명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대비 비중임.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여율이 1950년대 초 각각 20%와 30% 내외에서 최근(2008-2013년) 40%와 50% 내외로 상승하였다.

(산업별 취업자 비중) 농림어업의 취업자수가 전체 산업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하였으나 SOC 및 서비스업 부분의 비중은 각각 16.8%와 76.7%로 급증하였다.

■ **주력 산업**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 주력 산업은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후반 이후 ‘첨단기술산업’으로 변해왔다. 이들 산업 중에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동차, 반도체, 조선 산업을 통해 산업의 역할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산업)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연간 생산 능력 세계 5위 수준이고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를 상회하였다. 자동차 산업을 수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980년 8,800만달러(전산업대비 비중 0.5%)에서 시작하여 2013년 449억 2,770만달러(전산업대비 비중 8.03%)로 규모가 커졌다. 2005년에는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7%까지 달했다.

(반도체 산업)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1990년대 초에 세계 선두에 올라섰고 한국 총수출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까지 달한다. 반도체 산업의 수출액은 1980년 이후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커가는 가운데 총수출 대비 비중도 10%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액 규모 기준으로 살펴봐도 1980년 이후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조선 산업) 한국의 조선산업은 선박 건조량 부문에서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내외를 지속하고 있다. 조선산업(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부문)의 총수출 대비 비중도 10%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총수출 대비 비중이 10%를 상회하였으나 현재 6%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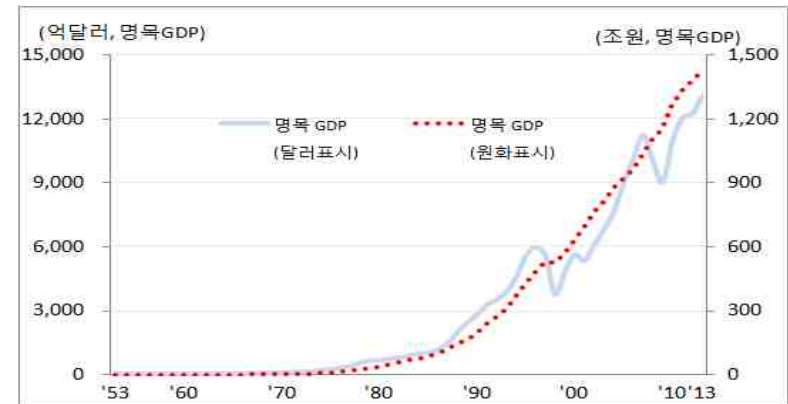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70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 잠재성장을 확충, 제조업 업그레이드,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효율성과 미래지향성을 고려한 새로운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유연한 이민정책 등을 통해 잠재성장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조업 혁신 기반 구축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R&D 자본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도입

○ **(GDP 규모) 한국의 GDP 규모는 고도성장기를 거쳐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현재 1950년대 초 대비 1,000배 이상 커졌음**

- 한국의 GDP는 13억 달러(1953년)에서 1조 3,043억달러(2013년)로 1,003배 이상 커졌고 108억달러(1972년)와 비교해도 121배 이상 경제규모가 커졌음
 -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13년 1조 3,043억달러로 1,003배 이상 커짐
 - 1960년대 경제도약기(1962-1971년) 이후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1972-1979년) 도입 첫해인 1972년 108억달러와 비교해도 121배 이상 규모가 커짐
- 한국 경제는 1960년대 고도성장기를 지나고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졌음
 - 한국 경제는 1962년(GDP규모 24억달러) 고도성장기에 돌입하고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의 경제 규모는 1,972억 달러로 확대됨
 - 이후 한국 경제는 1998년(3,749억달러) 외환위기, 2000년(5,619억달러) IT버블 붕괴, 2003년 (6,804억달러) 카드대란이라는 세 번의 경제위기를 맞음
 - 하지만, 2004년에는 한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는데 이때 우리 경제 규모는 7,653억 달러로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의 3.9배로 커졌음

< GDP 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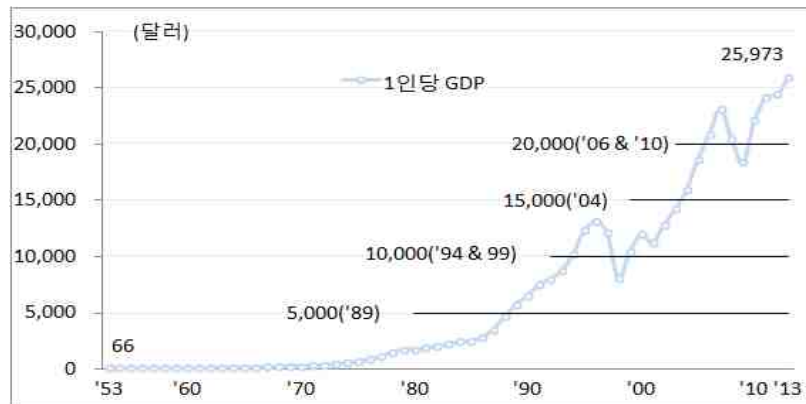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ECOS(새 국제기준 이행 및 기준년(2010) 개편 결과 국민계정(1953-2013년) 이용.

○ (1인당 GDP)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 이후 53년 후인 2006년 20,000달러를 상회하였고 2013년 현재 25,973달러를 기록

- 한국의 1인당 GDP는 1950년대 초 100달러 미만에서 53년만인 2000년대 중반에 20,000달러를 상회
 -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 이후 1989년에 5,000달러를 달성하기까지 무려 37년이나 걸렸는데 10,000달러 달성은 5년(혹은 11년), 15,000달러 달성은 5년, 20,000달러 달성은 2년(혹은 6년)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에는 30,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큼
- 한국의 1인당 GDP는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경제개발계획 등을 통해 1953년 66달러 대비 2000년대 중반 300배, 2013년 현재 390배 이상 규모로 성장
 - 6.25전쟁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냈고,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바탕으로 1960년대 경제도약기(1962-1971년), 1960~1975년 동안 베트남 전쟁을 지원한 특수효과가 있었음
 -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1972-1979년), 1980년대 전반 경제안정화, 3저현상(1986-1988년)에 힘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까지 안정적 성장세(1980-1997년)를 보였음
 - 외환위기 극복 및 구조조정기(1998-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2008-2013년)까지 이어지고 있음

< 한국의 1인당 GDP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ECOS(새 국제기준 이행 및 기준년(2010) 개편 결과 국민계정(1953-2013년) 이용).

2. 경제 변화

○ (잠재성장률) 기간별로 보면 5%대(1953-1961년)에서 10%대(1970-1979년)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9%대(1980-1988년), 7%대(1989-1997년), 4%대(1998~2007년), 3%대 중반(2008-2013년)으로 하락

- 기간별 평균 잠재성장률을 보면 6.25전쟁에서 1961년(1953~1961년) 기간에는 5.8%에서 1960년대 경제 도약기(1962~1969년)에 9.4%, 고도성장기(1970~1979년)에 10.0%, 석유과동 및 3저 호황기를 포함하는 기간(1980~1988년)에 9.3%로 높은 수준을 유지
- 1988년 올림픽 이후 외환위기 직전 신경제시대(1989~1997년) 기간에는 7.8%,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직전 기간(1998~2007)에는 4.9%로 낮아짐
-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충격을 포함하는 기간(2008~2013)에는 3.6%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해도 1.3%p 하락

< 한국의 잠재성장률 및 연평균 성장률 추이 >



자료 : 잠재성장률은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H-P필터링을 이용하여 추정. 기간별 구분의 주요 분기점으로는 1962년 1960년대 경제 도약기의 시점, 1970년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기의 시점, 본격적인 경제개발, 1970년 1980년 오일쇼크, 1988년 서울올림픽,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선정.

- (GDP 지출 항목별 비중) 소비 비중이 1950년대 초 90%이상에서 현재 60%대 중반으로 하락하고,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10%내외에서 30%대 초반으로 상승
- 소비 비중 추이 : 총소비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1997년) 이전 기간에는 70%에 근접했으나 이후 60%대 중반까지 하락
 - 국민총생산(GDP)에서 총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8.4%(1953-1961년)에서 69.8%(1989-1997년)로 하락했고
 - 이후 62.1%(1998-2007년)까지 했다가 65.6%(2008-2013년)로 다소 상승
- 총고정자본형성 비중 추이 : 비중이 10.6%(1953-1961년)에서 37.1%(1998-2007년)까지 커졌다가 최근 30.8%(2008-2013년)로 작아짐
 - 건설투자 :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6%(1953-1961년)에서 21.0%(1998-2007년)까지 증가했다가 17.0%(2008-2013년)로 하락
 - 설비투자 : 7.3%((1953-1961년)에서 13.9%(1980-1988), 13.3%(1998-2007년)을 기록했으나 9.6%(2008-2013년)으로 10% 미만으로 하락
 - 지적재산생산물투자 : 0.3%(1053-1961년)에서 4.3%(2008-2013년)까지 상승
- 순수출 비중 추이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국민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입 비중보다 작았으나 이후 수출 비중이 수입을 상회
 - 수출 비중이 1.7%(1953-1961년)에서 35.8%(2008-2013년)로 커짐
 - 수입 비중은 10.8%(1953-1961년)에서 33.8%(2008-2013년)로 커짐

< 국내총생산의 지출 항목별 비중 >

(%, 조원)

| 비중 | 53-61 | 62-69 | 70-79 | '80-88 | '80-85 | 89-97 | 98-07 | 08-13 |
|-----------|-------|-------|-------|--------|--------|-------|-------|--------|
| 최종소비지출 | 98.4 | 98.2 | 87.5 | 73.4 | 65.2 | 69.8 | 62.1 | 65.6 |
| 총고정자본형성 | 10.6 | 10.9 | 21.4 | 30.2 | 30.3 | 30.2 | 37.1 | 30.8 |
| 건설투자 | 7.3 | 7.5 | 13.2 | 15.6 | 15.4 | 16.2 | 21.0 | 17.0 |
| 설비투자 | 3.0 | 3.2 | 7.7 | 13.9 | 13.4 | 12.7 | 13.3 | 9.6 |
| 지식재산투자 | 0.3 | 0.3 | 0.5 | 0.7 | 1.5 | 1.2 | 2.8 | 4.3 |
| 재고증감 | 1.3 | 1.0 | 1.8 | 2.0 | 2.8 | 2.5 | 1.6 | 0.9 |
| 순수출 | -9.2 | -9.4 | -10.6 | -5.7 | 1.6 | -2.5 | -0.8 | 2.8 |
| 수출 | 1.7 | 2.2 | 8.5 | 23.5 | 30.9 | 28.3 | 25.8 | 35.8 |
| 수입 | 10.8 | 11.5 | 19.2 | 29.1 | 29.2 | 30.9 | 26.6 | 33.0 |
| 통계상불일치 | -1.1 | -0.9 | -0.1 | 0.0 | 0.1 | 0.0 | 0.1 | -0.1 |
| 국내총생산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국내총생산(조원) | 0.2 | 1.1 | 12.5 | 82.7 | 63.0 | 332.2 | 780.3 | 1276.7 |

주 : 1) 각 지출 항목별 비중은 명목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임.
 2) 지식재산투자는 '지적재산생산물투자'를 의미함.

-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 최종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외환위기 직전 기간 각각 60%와 50%에 근접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50%와 15% 내외로 하락
- 최종소비지출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기여율)는 5.6%p(101.6%, 1953-1961년)에서 4.8%p(59.6%, 1989-1997년), 2.5%p(51.4%, 1998-2007년), 1.6%p(51.6%, 2008-2013년)으로 하락
-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기여율)는 4.9%p(49.8%, 1962-1969년)에서 3.9%p(48.6%, 1989-1997년), 0.7%p(14.7%, 1998-2007년), 0.5%p(14.8%, 2008-2013년)로 추세적으로 하락
- 순수출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기여율)는 최근 1.2%(38.9%, 2008-2013년) 기록

< GDP 성장에 대한 지출 항목별 기여도 및 기여율 추이 >

(%p, %)

| 비중 | 54-61 | 62-69 | 70-79 | '80-88 | '80-85 | 89-97 | 98-07 | 08-13 |
|-----------|-------|-------|-------|--------|--------|-------|-------|-------|
| <기여도(%p)> | | | | | | | | |
| 최종소비지출 | 5.6 | 7.4 | 5.9 | 4.6 | 4.2 | 4.8 | 2.5 | 1.6 |
| 총고정자본형성 | 1.1 | 4.9 | 4.6 | 2.6 | 1.5 | 3.9 | 0.7 | 0.5 |
| 건설투자 | 0.7 | 2.8 | 1.8 | 1.3 | 1.1 | 2.0 | 0.1 | -0.1 |
| 설비투자 | 0.4 | 2.0 | 2.6 | 1.0 | 0.2 | 1.5 | 0.3 | 0.3 |
| 지식재산투자 | 0.0 | 0.1 | 0.1 | 0.3 | 0.2 | 0.4 | 0.3 | 0.3 |
| 재고증감 | -1.0 | -0.3 | 0.0 | 0.1 | -0.1 | -0.1 | 0.2 | -0.2 |
| 순수출 | 0.0 | -2.1 | -0.2 | 1.7 | 1.9 | -0.6 | 1.4 | 1.2 |
| 수출 | 0.2 | 2.1 | 4.5 | 4.1 | 2.6 | 2.9 | 4.2 | 3.6 |
| 수입 | 0.2 | 4.2 | 4.7 | 2.4 | 0.7 | 3.5 | 2.8 | 2.3 |
| 통계상불일치 | -0.2 | -0.1 | 0.1 | 0.0 | 0.0 | 0.1 | 0.0 | 0.0 |
| 국내총생산 | 5.5 | 9.8 | 10.5 | 9.0 | 7.5 | 8.1 | 4.9 | 3.2 |
| <기여율(%)> | | | | | | | | |
| 최종소비지출 | 101.6 | 75.3 | 56.7 | 51.5 | 56.1 | 59.6 | 51.4 | 51.6 |
| 총고정자본형성 | 20.0 | 49.8 | 44.0 | 28.5 | 20.0 | 48.6 | 14.7 | 15.8 |
| 건설투자 | 12.5 | 28.7 | 17.5 | 14.5 | 14.9 | 25.2 | 1.4 | -3.2 |
| 설비투자 | 6.8 | 20.6 | 25.2 | 11.2 | 2.4 | 18.9 | 6.9 | 8.4 |
| 지식재산투자 | 0.7 | 0.8 | 1.2 | 3.0 | 2.9 | 4.6 | 6.5 | 10.5 |
| 재고증감 | -18.2 | -2.8 | 0.4 | 1.5 | -1.6 | -1.7 | 4.7 | -5.8 |
| 순수출 | 0.2 | -21.4 | -1.9 | 18.6 | 25.3 | -7.2 | 28.4 | 38.9 |
| 수출 | 3.0 | 21.5 | 42.9 | 45.2 | 34.4 | 35.9 | 85.3 | 112.6 |
| 수입 | 2.7 | 42.9 | 44.8 | 26.6 | 9.1 | 43.0 | 56.9 | 73.7 |
| 통계상불일치 | -3.6 | -1.0 | 0.6 | -0.1 | 0.2 | 0.8 | 0.6 | -1.1 |
| 국내총생산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 1) 국내총생산은 기간 중 성장률의 단순 평균 수치임.
 2)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통계치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전체증감률에 어느정도 기여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임. 기여율은 기준시점의 통계치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증가분을 전체의 증감분에 대한 백분비로 표시한 것임.

○ (고용 지표 추이)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그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짐. 실업자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나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하락

- 전체 산업의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0%를 상회
 - 전체 산업의 취업자를 보면, 평균 838만 1,000명(1962-1969년)에서 평균 2,415만 1,000명(2008-2013년)으로 2.8배 이상 증가
 -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62-1969년 기간 각각 65.9%와 34.1%에서 2008-2013년 기간 29.0%와 71.0%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실업자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추세적으로 하락
 - 실업자수는 평균 58만 3,000명(1962-1969년)에서 평균 92만 7,000명(1998-2007년)으로 증가했고 이후 평균 76만 5,000명(2008-2013년) 기록
 - 실업률은 1962-1969년 기간 6.6%에서 최근(2008-2013년) 3.1%로 하락. 실업률 산정공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하락세
 - 고용률은 1962-1969년 기간 53.2%에서 2008-2013년 기간 59.1%로 상승. 고용률 산정공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15세이상인구는 1962-1969년 1,572만 4000명에서 2008-2013년 기간 4,083만 5,000명으로 증가
- 제조업 부문의 단위노동비용은 16.2(1970-1979년, 2002=100)에서 115.9(2008-2013년, 2002=100)로 615% 증가

< 한국의 고용 관련 지표 추이 >

| | | (천명, %) | | | | | | |
|--------------|-----------|---------|---------|---------|---------|---------|---------|---------|
| 비중 | | '62-'69 | '70-'79 | '80-'88 | '80-'85 | '89-'97 | '98-'07 | '08-'13 |
| 취 | 수(천명) | 8,381 | 11,623 | 14,969 | 14,332 | 19,430 | 21,926 | 24,151 |
| 업 | 비임금근로자(%) | 65.9 | 58.5 | 48.2 | 50.3 | 37.8 | 35.3 | 29.0 |
| 자 | 임금근로자(%) | 34.1 | 41.5 | 51.8 | 49.7 | 62.2 | 64.7 | 71.0 |
| 실업자수(천명) | | 583 | 480 | 603 | 644 | 486 | 927 | 765 |
| 실업률(%) | | 6.6 | 4.0 | 3.9 | 4.3 | 2.4 | 4.1 | 3.1 |
| 고용률(%) | | 53.2 | 56.4 | 55.5 | 55.2 | 59.6 | 58.9 | 59.1 |
| 15세이상 인구(천명) | | 15,724 | 20,595 | 26,957 | 25,971 | 32,563 | 37,212 | 40,835 |
|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 | - | 16.2 | 51.6 | 48.9 | 92.5 | 101.3 | 11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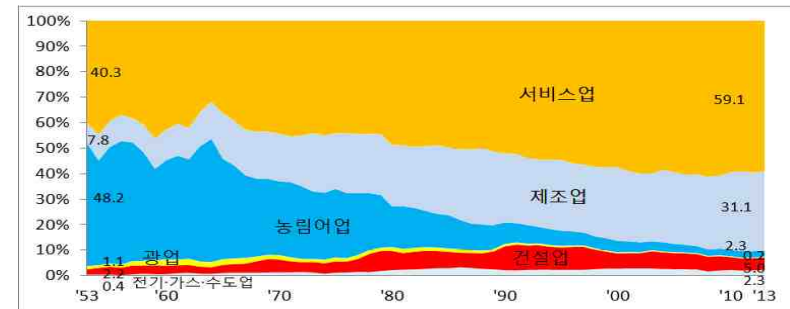
- 주 : 1)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은 2002=100 기준.
 2) 취업자, 실업률, 고용률 비중의 기간 '62-'69는 '63-'69 기간의 수치임.
 3)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 사용·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은 만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만 15세이상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고용률(%) = (취업자÷15세이상인구) × 100).

3. 산업 변화

○ (산업별 비중) 농림어업의 비중은 1950년대 초 40% 이상에서 최근 2%대로 급격히 작아지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각각 10%와 40% 내에서 30%와 60%내외로 커짐

- 1953년(국민소득 처음 편제)부터 1988년(올림픽)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 커지고 서비스업 비중은 완만하게 커짐
 - 1953-1961년 기간의 농림어업의 비중은 42.5%였는데 비해, 제조업과 서비스 비중은 각각 10.8%와 41.3%를 기록
 -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어 경제도약기가 포함된 1962-1969년 기간에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35.1%로 하락하는 가운데 제조업은 17.4%로 이전 기간보다 비중이 커지나 서비스업은 40.6%로 이전 기간보다 비중이 작아짐
 - 1970년대 중화학 육성기(1972-1979년)가 포함 1970-1979년 기간에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23.9%로 이전 기간보다 크게 작아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23.0%, 44.4%로 비중이 커짐
 - 1980년대 전반 경제안정화와 1980년대 후반 '3저시대'가 포함되는 1980-1988년 기간에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12.5%로 10%대로 작아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27.4%, 49.7%로 커짐
- 올림픽(1988년) 이후에는 농림어업 부문 비중은 급격히 작아지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모두 커짐
 - 농림어업 부문은 1989-1997년 기간 6.4%, 1998-2007년 기간 3.6%, 2008-2013년 기간 2.5%로 비중이 급격히 위축
 - 제조업 부문은 1989-1997년 기간 27.1%, 1998-2007년 기간 27.9%, 2008-2013년 기간 30.4%를 기록
 - 서비스업 부문은 1989-1997년 기간 54.5%, 1998-2007년 기간 59.1%, 2008-2013년 기간 59.7%를 기록. 전기, 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중은 1989-1997년 기간 66.0% 1998-2007년 기간 68.2%, 2008-2013년 기간 67.0%로 그 비중이 70%에 근접

< 산업별 비중 >



주 : 각 산업별 비중은 명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대비 비중임.

○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여율이 각각 20%와 30% 내외에서 40%와 50% 내외로 상승

- 농림어업의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기여율)는 1.9%p(35.3%, 1954-1961년)에서 0.03%p(1.0%, 2008-2013년)로 하락
- 제조업의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기여율)는 1.1%p(19.4%, 1954-1961년)에서 1.3%p(40.8%, 2008-2013년)로 상승. 제조업 부문이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의 상대적 비중에 비해 기여도(기여율)는 높은 수준 유지
- 서비스업의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기여율)는 1.7%p(31.0%, 1954-1961년)에서 1.6%p(50.8%, 2008-2013년 기간)로 상승. 서비스업의 산업내 비중과 기여율이 함께 상승하였으나 기여율이 산업내 비중을 하회하고 있어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을 보여줌

< GDP성장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 및 기여율 추이 >

| | (%p, %) | | | | | | | |
|--------------|---------|--------|--------|---------|---------|--------|--------|--------|
| 비중 | 54-'61 | 62-'69 | 70-'79 | '80-'88 | '80-'85 | 89-'97 | 98-'07 | 08-'13 |
| <기여도(%p)> | | | | | | | | |
| 농림어업 | 1.9 | 1.6 | 1.0 | 0.3 | 0.3 | 0.15 | 0.01 | 0.03 |
| 광업 | 0.2 | 0.2 | 0.1 | 0.0 | 0.0 | 0.0 | 0.0 | 0.0 |
| 제조업 | 1.1 | 2.8 | 3.5 | 2.7 | 2.1 | 2.2 | 2.0 | 1.3 |
| 전기, 가스 및 수도업 | 0.1 | 0.2 | 0.2 | 0.4 | 0.4 | 0.3 | 0.2 | 0.1 |
| 건설업 | 0.3 | 0.7 | 0.5 | 0.4 | 0.4 | 0.6 | 0.0 | -0.1 |
| 서비스업 | 1.7 | 3.5 | 3.9 | 4.0 | 3.5 | 4.2 | 2.4 | 1.6 |
| 순생산물세 | 0.3 | 0.9 | 1.4 | 1.1 | 0.9 | 0.8 | 0.4 | 0.2 |
| 국내총생산 | 5.5 | 9.8 | 10.5 | 9.0 | 7.5 | 8.1 | 4.9 | 3.2 |
| <기여율(%)> | | | | | | | | |
| 농림어업 | 35.3 | 16.1 | 9.1 | 3.7 | 4.4 | 1.1 | 0.2 | 1.0 |
| 광업 | 3.0 | 1.5 | 0.8 | 0.2 | 0.2 | -0.3 | -0.2 | 0.0 |
| 제조업 | 19.4 | 28.1 | 33.4 | 30.6 | 27.6 | 27.3 | 40.2 | 40.8 |
| 전기, 가스 및 수도업 | 0.9 | 2.4 | 1.8 | 4.5 | 4.9 | 3.2 | 3.2 | 2.1 |
| 건설업 | 4.6 | 7.4 | 4.3 | 4.0 | 4.7 | 7.2 | -0.8 | -2.1 |
| 서비스업 | 31.0 | 35.7 | 37.5 | 45.2 | 46.2 | 51.6 | 48.7 | 50.8 |
| 순생산물세 | 5.9 | 8.8 | 13.0 | 11.8 | 12.0 | 9.9 | 8.7 | 7.3 |
| 국내총생산 | 5.5 | 9.8 | 10.4 | 9.0 | 7.5 | 8.1 | 4.9 | 3.2 |

- 주 : 1) 국내총생산은 기간 중 성장률의 단순 평균 수치임.
 2)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통계치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전체증감률에 어느정도 기여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임. 기여율은 기준시점의 통계치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증감분을 전체의 증감분에 대한 백분비로 표시한 것임.
 3) '순생산물세'는 '생산물세'에서 정부보조금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

○ (산업별 취업자 비중) 농림어업의 취업자수가 전체 산업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하나 SOC 및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은 급증

- 농림어업의 경우에는 취업자(전체산업 취업자 대비 비중)가 1963-1969년 기간 475만 9,000명(56.8%)에서 2008-2013년 158만 2,000명(6.5%)로 취업자 규모 및 비중이 급감
- 제조업을 포함하는 광공업의 경우에는 취업자(전체산업 취업자 대비 비중)가 1963-1969년 기간 96만명(11.5%)에서 2008-2013년 405만 4,000명(16.8%)로 취업자 규모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짐
- SOC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취업자(전체산업 취업자 대비 비중)가 1963-1969년 기간 265만 6,000명(31.7%)에서 2008-2013년 1,851만 6,000명(76.7%)로 취업자 규모 및 비중이 커짐
 ·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취업자 규모와 산업내 비중이 1960년대 이후 2000년대 까지 가장 중요한 산업임

<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

| | (천명, %) | | | | | | |
|-----------|-----------------|-----------------|-----------------|-----------------|------------------|------------------|------------------|
| | 63-'69 | 70-'79 | '80-'88 | '80-'85 | 89-'97 | 98-'07 | 08-'13 |
| 계 | 8,381 (100) | 11,623 (100) | 14,969 (100) | 14,332 (100) | 19,430 (100) | 21,926 (100) | 24,151 (100) |
| 농림어업 | 4,759 (56.8) | 5,202 (44.8) | 4,084 (27.3) | 4,338 (30.3) | 2,685 (13.8) | 2,025 (9.2) | 1,582 (6.5) |
| 광공업 | 967 (11.5) | 2,217 (19.1) | 3,684 (24.6) | 3,288 (22.9) | 4,883 (25.1) | 4,150 (18.9) | 4,054 (16.8) |
| SOC 및 서비스 | 2,656 (31.7) | 4,205 (36.2) | 7,201 (48.1) | 6,705 (46.8) | 11,862 (61.1) | 15,751 (71.8) | 18,516 (76.7) |

주 : () 안 총취업자 대비 비중을 의미.

4. 주력 산업

○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 주력 산업은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후반 이후 '첨단기술산업'으로 변해감

- 단계별로 보면,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중화학공업 및 일부 첨단기술산업, 1980년대 후반~2000년대 기존 중화학공업 및 첨단기술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
- 이들 산업 중에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동차, 반도체, 조선 산업을 통해 산업의 단면을 살펴볼 필요 있음

< 한국의 경제발전단계별 주요 산업 >

|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80년대 후반 ~2000년대 |
|-------|--------|--------|----------------------|--|
| 주요 산업 | 경공업 | 중화학공업 | 중화학공업 및 일부 첨단기술산업 | 기존 중화학공업 (중점특화기술) 첨단기술 (선별적 전략기술) |

자료 : 박우희·배용호, 『한국의 기술발전』, 1996.

○ (자동차 산업) 연간 생산 능력 세계 5위 수준이고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를 상회

- 최초의 국산차 개발에서 최초의 고유 모델 개발로 발전
 - 1950년대는 한국 자동차업계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는 한해로 1955년에 국제 차량주식회사가 최초의 국산차인 '시발'을 판매하기 시작
 - 1967년에 신진자동차가 '퍼블리카'라는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달리는 즐거움을 몸소 체험하려는 오너드라이버들을 등장시켰으며, 같은 해에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설립
 - 1975년에 비로서 현대자동차에서 최초의 고유모델인 '포니'를 판매

- 중형차 시대 및 자동차 레저 문화 확산
 - 1980년대 들어서는 한국은 대우 로얄살롱, 현대자동차 그랜저와 고유모델인 스텔라가 동시에 판매되면서 중형차 시대를 맞이하게 됨
 - 또한, 1981년에 기아자동차가 '봉고'를 판매하였는데 당시 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레저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기라 큰 인기를 얻었고, 이로 인해 기아 자동차는 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됨
- 생산 누적 및 수출 누적 판매가 각각 8,000만대와 4,000만대를 넘었고 하이브리드 차와 엔진 부문에서까지 기술력이 인정됨
 - 한국은 1955-1992년 기간 생산 누적 1,000만대를 돌파했고 1975-1999년 기간 수출 누적 1,000만대를 돌파. 1955-2013년 기간 생산 누적 8,000만대, 수출 누적 4,400만대를 기록. 연간 생산능력은 2013년 기준 세계 5위 수준
 - 2009년 현대자동차는 아반떼, 기아자동차는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하이브리드 시대로 돌입
 - 2004년 이후 현대기아차가 세계 자동차 생산 5위를 유지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타우엔진이 2009년 북미 10대 엔진에 선정되고, 제네시스가 북미 올해의 차와 캐나다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등 기술력 또한 인정받음
- 자동차 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서 8%내외까지 커짐
 - 수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980년 8,800만달러(전산업대비 비중 0.5%)에서 시작하여 2013년 449억 2,770만달러(전산업대비 비중 8.03%)로 규모가 커졌음. 2005년에는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7%까지 달함

< 한국 자동차산업 수출의 국민경제상 비중 추이 (백만달러, %) >

|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3 |
|------------|--------|--------|--------|---------|---------|---------|---------|---------|
| 전산업(A) | 17,505 | 30,283 | 65,016 | 12,5057 | 172,268 | 284,419 | 466,384 | 559,632 |
| 자동차산업(B) | 88 | 580 | 1,911 | 8,409 | 12,382 | 26,925 | 33,594 | 44,927 |
| 비중(B/A, %) | 0.50 | 1.92 | 2.94 | 6.72 | 7.19 | 9.47 | 7.20 | 8.03 |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무역협회. 주 : 자동차부품산업을 포함.

○ (반도체 산업)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1990년대 초에 세계 선두에 올라섰고 한국 총수출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까지 달함

- 반도체 부문,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1990년대초 이후 세계의 선두에 섬
 - 한국은 1984년에 삼성전자가 256k DRAM을 개발하고 2년 뒤인 1986년에 1메가 DRAM을 개발하게 됨. 이후 64메가 DRAM까지는 반도체 선진국을 따라가는 형국이었음
 - 1993년에 삼성전자가 메모리분야 세계 1위로 올라가고 이듬해인 1994년에는 세계 최초로 256메가 DRAM을 개발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게 됨
 - 이후 DRAM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선두자리를 유지하면서, 2005년 9월 세계 최초 50나노 16기가 낸드플래시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후부터는 낸드플래시도 삼성전자의 개발 속도가 주요 경쟁국보다 빨라지게 됨
- 수출액 기준으로 살펴봐도 1980년 이후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커가는 가운데 총산업수출 대비 수출 비중도 10%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

< 한국 반도체산업 수출의 국민경제상 비중 추이 (백만달러, %) >

|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3 |
|-----------|--------|--------|--------|---------|---------|---------|---------|---------|
| 전산업(A) | 17,505 | 30,283 | 65,016 | 125,057 | 172,268 | 284,419 | 466,384 | 559,632 |
| 자동차산업(B) | 434 | 965 | 4,541 | 17,695 | 26,006 | 29,986 | 50,707 | 57,143 |
| 비중(B/A,%) | 2.48 | 3.19 | 6.98 | 14.15 | 15.10 | 10.54 | 10.87 | 10.21 |

주 : 한국 무역협회 MTI 3단위(831) 기준.

○ (조선 산업) 선박 건조량 부문에서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내외를 지속하고 있음

- 최초의 유조선 수주에서 출발하여 선박 건조량 세계 2위 유지
 - 한국의 조선 산업이 1970년대에 들어 전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조선소 없이 500원짜리 지폐로 그리스 애플도어사의 롱바톱 회장을 설득하여 6,190만 달러에 유조선 2척을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됨
 - 이후 현대조선소가 1973년에 설립되고 1974년에 현대미포조선소가 설립
 - 현대중공업이 1983년 세계 선박 수주 및 건조량 1위로 등극하면서 조선산업에서의 세계 판도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함
 - 이후 한국 조선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건조량을 기준으로 2010년 1,268만 CGT(세계 5,164만 CGT대비 24.5%), 2013년 1,003만 CGT(세계 3,835만 CGT대비 26.2%)로 세계 2위를 유지
- 기술면에서 LNG선, 쇄빙선과 극지선 등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입지를 차지
 - 기술면에서도 현대중공업이 1994년에 LNG선을 인도함으로써 뛰어난 기술력을 보였고, 2000년대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2002년 세계 최대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준공
 - 2004년 세계 최초 선박 육상 건조, 2007년 세계 최대 LNG선 건조 등 각종 기록을 휩쓸었다. 더욱이, LNG선, 쇄빙선과 극지선 등 특수선 분야에서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함
- 수출액 규모 기준으로 살펴봐도 1980년 이후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음. 총수출 대비 비중도 10%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 2010년 이후 총수출 대비 비중이 10%를 상회하였으나 6%대 후반을 기록

< 한국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수출의 국민경제상 비중 추이 (백만달러,%) >

|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3 |
|-----------------|--------|--------|--------|---------|---------|---------|---------|---------|
| 전산업(A) | 17,505 | 30,283 | 65,016 | 125,057 | 172,268 | 284,419 | 466,384 | 559,632 |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B) | 620 | 5,044 | 2,829 | 5,669 | 8,420 | 17,727 | 49,112 | 37,168 |
| 비중(B/A,%) | 3.54 | 16.66 | 4.35 | 4.53 | 4.89 | 6.23 | 10.53 | 6.64 |

주 : 한국 무역협회 MTI 3단위(746) 기준.

5. 시사점

-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70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 잠재성장을 확충, 제조업 업그레이드,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의 필요성이 요구됨**

첫째, 효율성과 미래지향성을 고려한 새로운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

- **효율성** : 기존 성장 방식에서의 양적 투입 위주가 아니라 효율성이 중시되는 경제 모델이 필요함
 - 이는 양적 투입에 의한 외형적 성장보다 질적 투입에 의한 실속 있는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것임
- **미래지향성**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virtuous circle)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의 급감으로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가 급증 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세수가 급감하여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따라 한정된 정부 재원이 성장 부문에서 분배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어 경제 성장률이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함
 - 경제성장은 세수의 원천인 만큼,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둘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유연한 이민정책 등을 통해 잠재성장을 확충

- 향후 한국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인구구조 변화는 다른 사회 및 경제 변화에 비해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
- 성장잠재력 약화의 최대 걸림돌인 노동력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확보, 출산을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유연한 이민정책 등이 필요함

- 출산률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들은 나올 건 다 나왔음. 긴 호흡으로 각각의 정책들이 임계점(critical point)을 넘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유연한 이민정책 도입을 통한 ‘생산가능인구 확대’ 등 잠재성장력을 확충해야 할 것임
-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 신성장 부문의 조기 산업화, 신수요 개척 등의 노력이 필요함

셋째,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조업 혁신 기반 구축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

- 제조업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4T(Tax, Trade, Technology, Talent)¹⁾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됨
- 민간 차원의 제조업의 R&D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
- 또한 제조업 부문의 우수 인력 확보 및 활용 대책 수립이 필요
- 특히, 경제 내 서비스업 부분에도 제조업 생산성이 파급되는 경로를 다양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산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야 할 것임

넷째,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R&D 자본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기존에 선정된 유망서비스 부문(보건·의료, 관광, 교육, 콘텐츠,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부문 등)에 집중할 필요 있음. 이들 부문에 대한 맞춤형 투자와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1) 미국의 현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이사장인 로버트 앳킨슨 등은 제조업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영역(세제, 교역, 기술, 인력)을 제시함.

- 한국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낮고,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이 취약. 서비스업 부문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 경쟁이 제한적인 분야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 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R&D 자본 확충을 통한 고부가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그러나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경쟁력을 가지는 관광 서비스, 문화서비스, 운송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부문에 대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임희정 연구위원 (031-288-7953 / 02-2072-6218, limhj9@hri.co.kr)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 구 분 | 2013 | 2014 | | | | 2015 | | |
|--------|--------------------|--------------------|----------------|----------------|----------------|----------------|----------------|----------------|
| | 연간 | 1/4 | 2/4 | 3/4 | 연간(E) | 연간(E) | | |
| 국민계정 | 경제성장률(%) | 3.0 | 3.9 | 3.5 | 3.2 | 3.6 | 3.6 | |
| | 민간소비(%) | 2.0 | 2.5 | 1.5 | 1.5 | 2.3 | 2.8 | |
| | 건설투자(%) | 6.7 | 4.3 | 0.2 | 2.6 | 1.9 | 3.0 | |
| | 설비투자(%) | -1.5 | 7.3 | 7.7 | 4.3 | 5.7 | 5.1 | |
| 대외거래 | 경상수지(억 \$) | 799 | 151 | 241 | 227 | 800 | 680 | |
| | 통관기준 | 무역수지(억 \$) | 441 | 52 | 149 | 91 | 433 | 426 |
| | | 수출(억 \$) 증감률(%) | 5,596 (2.1) | 1,376 (1.7) | 1,457 (3.2) | 1,421 (3.9) | 5,770 (3.1) | 6,023 (4.4) |
| | 수입(억 \$) 증감률(%) | 5,156 (-0.8) | 1,323 (2.0) | 1,308 (3.2) | 1,331 (5.6) | 5,336 (3.5) | 5,597 (4.9) |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1.3 | 1.1 | 1.6 | 1.4 | 1.7 | 1.9 | |
| 실업률(%) | 3.1 | 4.0 | 3.7 | 3.3 | 3.6 | 3.4 | | |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